단일화 '삐걱'… 文·安 담판으로 푸나

협상 중단 이틀 지나도 해법 못찾고 표류

캠프 관계자 선에서 문제 해결 어려울 듯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중단된 지 이틀이 지났으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문 후보가 15일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안 후보 측은 민주당 발(發) '안철수 양보론'과 조직적 세몰이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재차 요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국민 관심끌기 쇼"라고 맹비난하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부산을 방문 중인 문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혹여라도 우리 캠프 사람들이 뭔가 저쪽에 부담을 주거나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후보는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정보다 결과에만 연연하고 이것을 경쟁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과로 이기는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안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제 '지켜보겠다. 성실한 가시적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나 다른 변화가 없다"며 "오늘도 역시 성실하고 충실한 가시적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이 안 후보 측의 협상중단 선언 이후 취한 조치가 사과 이상의 실질적 내용이 없어 현 상태로는 다시 협상에 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 측은 '안철수 양보론'을 거론한 당사자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상대를 향한 자극적인 표현과 조직적 세몰이를 하지 않겠다는 문 후보 측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 측은 안 후보 측이 '안철수 양보론' 발설자로 지목한 캠프 인사가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난감해 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 당 차원의 조직활동도 정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 오후께로 예상된 두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화 협상 중단이 길어지고 있지만 양 캠프에서는 이번 일로 단일화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까지 비화돼선 안 된다는 우려가 커 일정한 냉각기를 거친 후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측 모두 단일화를 무산시켰을 때 받을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일화 룰 협의팀과 달리 정책연대를 위한 경제복지정책팀과 통일외교안보정책팀의 조율작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문, 안 두 후보가 직접 만나거나 결단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 측의 요구에 대한 문 후보 측의 대응을 놓고 볼 때 캠프 관계자 선에서 이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에서다.

한편, 이 같은 야권의 상황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미 잘 짜인 대국민 관심끌기쇼를 이제 시작한 것"이라면서 "협상 중단, 갈등, 후보 간 극적 만남, 극적 합의 이런 게 다 정해진 각본"이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선대위 대변인도 "설령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속타는 文 "사과 받아주오"

협상 재개 노력 … "오해 받는 행동 말라" 내부 단속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단일화 룰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을 달래기 위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묘안이 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15일 연 긴급 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후보는 협상이 중단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안철수 후보 및 캠프 쪽에 사과를 하셨다"면서 "우리 후보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다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어 "문 후보가 밝혔듯이 최대한 안 후보 자극하거나 오해할 만한 행동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내렸다"면서 "그러나 협상은 재개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입장이다. 협상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부산을 방문중인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드리고 싶다"면서 "혹여라도 저희 쪽 캠프 사람들이 뭔가 저쪽(안 후보 측)에게 부담을 주거나 자극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문 후보 측의 이 같은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 측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여전히 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문 후보 측은 후속 조치에 대한 수위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문 후보가 안 후보와의 만남 추진 등을 통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경선은 물건너가면서 문 후보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대위 인사는 "감정싸움 양상이 지속되면 '아름다운 단일화'는 힘들어지고 상처가 불가피하다"라며 협상 재개를 거듭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강경한 安 "이대론 못한다"

민주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 단일화 약속은 꼭 지킬것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5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룰 협상 잠정 중단과 관련해 "이대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문 후보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강경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 약속은 꼭 지키려고 한다"고 밝혀 협상 여지도 남겼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깊은 실망을 느꼈다"며 문 후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날 광주MBC와 가진 특별대담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약속은 꼭 지키고 반드시 정권교체·정치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단일화 협상 중단과 관련해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상은 했지만,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단일화 결과만 놓고 승리만 목적으로 경쟁하는 것은 구태 정치 관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새 정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떨어져 나가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선 승리도 정치개혁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결과 위주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양쪽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행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하는지 민주당이 잘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바꿀 수 있겠다는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안 후보는 또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고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다리를 불 살랐다는 표현'을 썼다"며 단일화에서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정치인의 삶을 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처가인 호남에 대한 생각과 발전 전략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표현 좋아하지 않는다"고 운을 뗀 뒤 "소외감과 아픔을 대변하고 의사를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창구라는 점에서 민주당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가 출마선언하면서 서로 자극제가 돼 민주당도 쇄신하고 건강한 경쟁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이런 상황이 더욱 바람직하고, 호남을 위해서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영·호남의 격차에 대해 "지역별로 어느 정도 개발이 이뤄졌는지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형평성 있게 재정을 배분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며 "단순히 선심성 나눠주기 식의 격차해소는 통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재정과 권한 자체를 지역정부에 위임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경남 선관위 "깨끗한 선거 투게더 코리아"

전남도선관위와 경남도선관위는 15일 영호남화합의 상징으로 전남 광양과 경남 하동을 잇는 남도대교에서 제18대 대선이 깨끗하고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기원하는 '투게더 코리아'행사를 열었다. 양 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주민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희망풍선'을 날리고 있다.

/광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光日만평

- 김종두

이름값 하시네

광신대학교
2013학년도 학부 수시 2차
■원서접수: 11. 12(월)~16(금)
2013학년도 대학원
■원서접수: 11. 12(월)~30(금)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